

# 미래에셋증권 Daily

## ▶ TODAY'S REPORTS

### 주식전략

김성근: 인플레이션 완화까지

### 산업분석

글로벌 인터넷 (비중확대) - 정용제: 넷플릭스가 열어주는 OTT 광고 시장

### 기업분석

나이키(NKE US) - 정우창: 부족한 캐털리스트

비에이치(매수) - 차유미: 실적이 너무 좋으니 못 믿을 만도

###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 2022. 10. 6 (목)

## 리서치센터

KOSPI (10/5)	2,215.22P(+5.84P)
KOSDAQ (10/5)	685.34P(-11.45P)
KOSPI200 (10/5)	289.05P(+0.78P)
미국 DowJones지수 (10/4)	30,273.87P(-42.45P)
미국 NASDAQ지수 (10/5)	11,148.64P(-27.77P)
중국상해종합지수 (9/30)	3,024.39P(-16.82P)
NIKKEI225지수 (10/5)	27,120.53P(+128.32P)
유럽 STOXX600지수 (10/4)	398.91P(-4.12P)
독일 DAX지수 (10/5)	12,517.18P(-153.30P)
VIX (10/5)	28.55P(-0.52P)
원/달러 환율 (10/5)	1,411.01(-15.28)
엔/달러 환율 (10/5)	144.64(+0.51)
달러/유로 환율 (10/5)	0.99(-0.01)
국고채 수익률(3년) (10/5)	4.16(+0.08)
미국채 10년 (10/5)	3.76(+0.13)
독일국채 10년 (10/5)	2.03(+0.16)
금가격 (10/5)	1,720.80(-9.70)
구리가격 (10/4)	7,545.00(+135.00)
유가(WTI) (10/5)	87.76(+1.24)
국내주식형펀드증감 (10/3)	0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10/3)	0억원
고객예탁금 (10/4)	512,195억원(+3,672억원)
신용잔고 (10/4)	168,483억원(-3,165억원)
대차잔고 (10/5)	639,803억원(-5,960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 인플레이션 완화까지

김성근 sungkeun.kim@miraeasset.com

## Macro

## 아직 이른 연준의 pivot 기대감: 핵심 인플레이션 완화 본격화까지 인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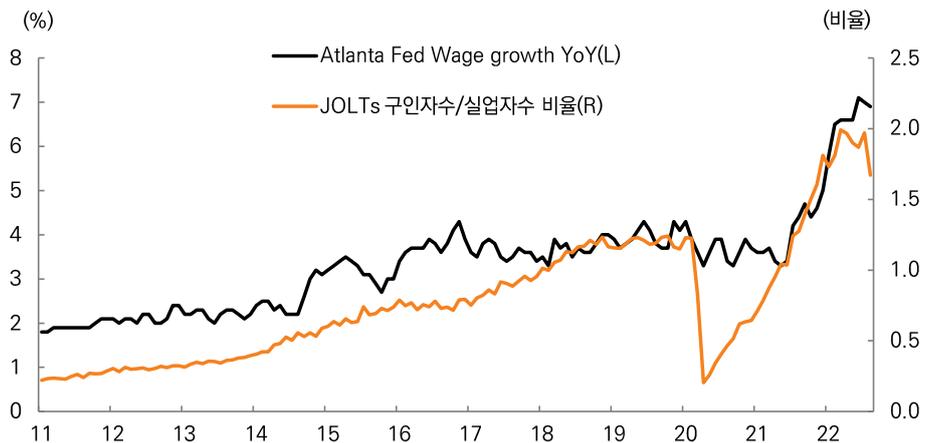
- 10월 들어 연준의 pivot 가능성이 다시 제기. 경기 둔화 신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환경에 대한 우려도 반영. 특히 JOLTs 구인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기대감 강화
- 그러나 pivot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 구인자수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내 불균형이 더 해소될 필요.
- 시장이 본격 반등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요구됨. 9월 FOMC에서 연준이 경기 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표출
- 핵심 CPI를 지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이 최근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는 중. 임대료와 주택 가격 MoM 기준으로 하락. 핵심 CPI도 결국은 하락세로 접어들 것. 핵심 CPI가 하락할 때까지 인내하는 구간 진입

## Strategy

## 완화될 때까지의 전략: 유틸리티, 의료, 에너지, 국방, 원자력

- 핵심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 이익 모멘텀이 남아있는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 높아진 경기 침체 우려, 달러 강세 환경까지 감안하면 유틸리티, 의료장비, 에너지를 선별. 이외에 테마 전략으로 국방, 원자력 에너지를 제시
- 1) 유틸리티, 의료장비는 이익 모멘텀이 높으면서 미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공통점을 보유. 경기 둔화 국면에도 강한 업종
  - 2) 에너지는 시클리컬 업종이지만,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긍정적.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며 유럽은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익 모멘텀도 여전히 강함
  - 3) 최근 달라진 우크라이나 환경을 감안해 국방을 테마 전략으로 추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에도 더욱 원활해 졌음. 미국은 9월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123억달러 지원안을 통과
  - 4)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구조적 수요 이어질 것. 이탈리아 선거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우파 정당이 승리하고, 미국에서도 우라늄 산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 포착

Title. 노동 시장 둔화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



자료: Atlanta Fed,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I. Macro Picture

## 아직 이른 연준 Pivot 기대감: 핵심 인플레이션 하락까지 인내

### 1) 높아진 연준 Pivot 기대감: 경기 둔화 신호, 주식시장 내 포지셔닝 영향

10월 3일, 4일에 걸쳐 주식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다. 이들 동안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이 나타난 결과인데, 연준의 pivot 기대감이 다시 올라온 영향이다. Fed funds rate에 반영된 23년 12월 금리와 22년 12월 금리간 스프레드가 재차 하락했고 선물 커브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반등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든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pivot 기대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야 한다. 이번 달 들어 pivot 기대감이 나타난 배경에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50bp 인상이 아닌 25bp 인상에서 그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 시장내 유동성 환경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유도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이유도 제기됐다. 실제로 블룸버그 금융환경지수를 보면 미국내 환경이 과거 2019년 수준까지 악화됐다.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던 주식시장내 포지셔닝도 주식시장 반등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한 모습이다.

그런데 9월 FOMC에서 확인했듯이 경기 둔화 징조만으로는 연준의 스탠스를 바꾸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9월 미국 ISM 제조업 PMI의 예상치 하회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공급자배송 지수와 가격지수도 하락하기는 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서비스 보다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상품(goods)에 영향을 더 미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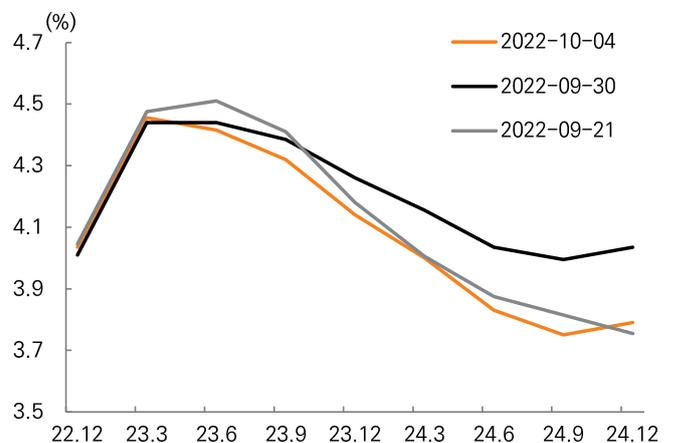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난 4일에 발표된 8월 JOLTs 구인자수다. 구인자수가 지난달 대비 1.1백만명이 줄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이에 8월 구인자수대 실업자수의 비율도 하락하면서 노동 시장내 불균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불균형 감소는 핵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인 만큼,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림 1.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 기준금리: 다시 올라오는 pivot 기대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Fed funds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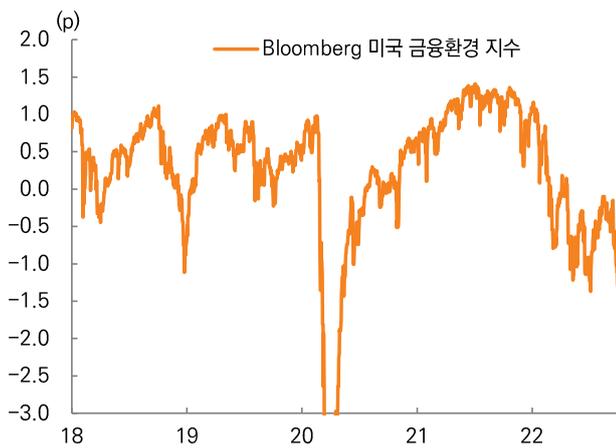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2) 인플레이션 하락까지는 노동 시장 불균형 해소가 더 진행될 필요

그러나 이번 JOLTs 결과로 선불리 판단하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구인자수는 감소했지만, 아직 실업자수에 비해서는 1.6배를 넘어서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감소로 이어지까지는 둔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져야 한다. 애틀랜타 연은의 연간 임금 상승률과 구인자수/실업자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1을 상회한 후 임금 상승률도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노동 시장내 불균형이 해소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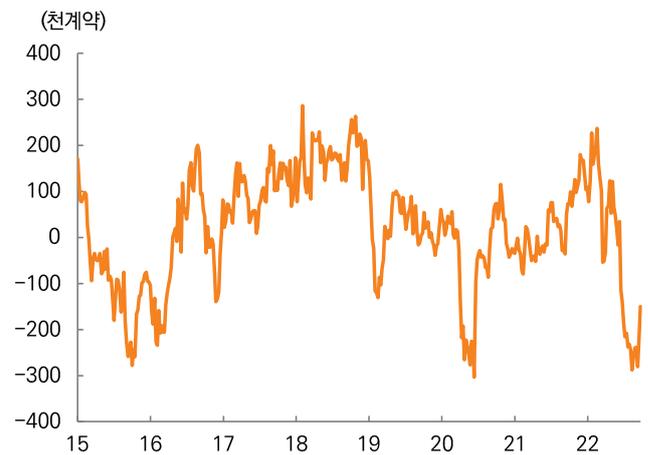
시간은 걸리겠지만, 핵심 CPI도 결국은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노동 시장 둔화 외에도 주거 비용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인 Realtor.com에서 월간 임대 리포트를 내는데, 지난 9월 22일, 8월 미국 평균 임대료 중간값은 13개월만에 처음으로 월간 단위 기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YoY 기준으로는 연초 고점에 도달한 후 9.8%로 감소했다. 다른 아파트 리스팅 사이트인 rent.com도 2020년말 이후 처음으로 임대료 중간값이 줄어 들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플랫폼인 zillow가 발표하는 월세 지수는 아직 월간 단위로 하락하지 않았지만, 다른 플랫폼들의 정황상, 조만간 비슷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2019년초 이상 수준으로 악화된 금융환경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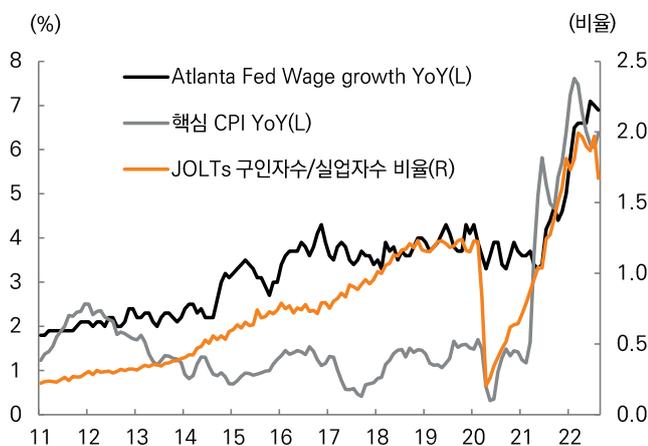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S&P 500 E-mini 선물 포지셔닝: 바닥권에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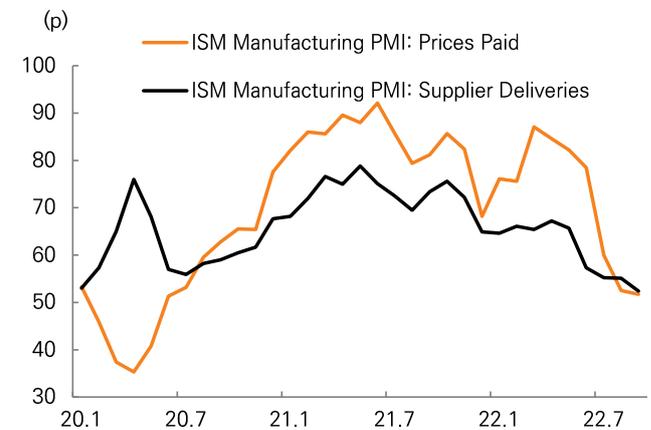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핵심 CPI 하락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



자료: Atlanta Fed,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ISM 공급자배송 지수, 가격 지수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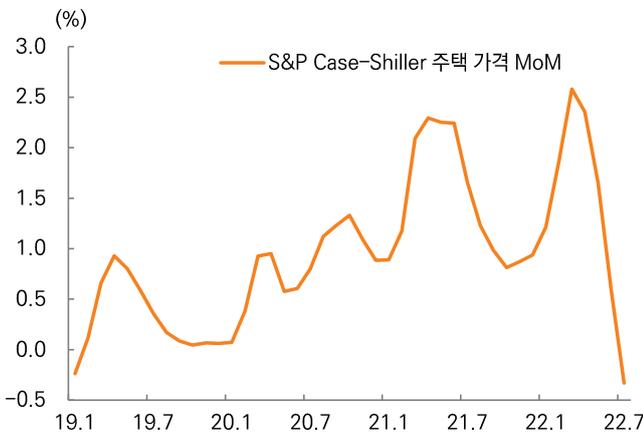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연간 단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S&P Case-Shiller 전미 주택 지수가 MoM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7%에 근접하는 등 구매 부담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앞으로 월세 압력과 함께 주택 가격 압력 완화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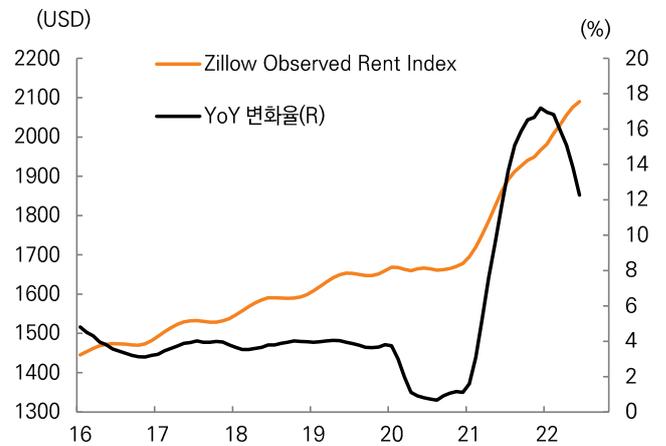
최종적으로, 이번 달 제기된 pivot 기대감을 따라가기 보다는 핵심 인플레이션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했지만 연준이 스탠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핵심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이 조금 더 둔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7일에 예정된 비농업부문고용자수를 비롯한 노동지표에서 추가 신호가 나타나는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본격 하락하기까지의 대응법을 생각할 시기다.

그림 7. 월간 기준으로도 하락한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자료: FRE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임대료 하락 조짐 나타나는 중



자료: Zillow.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II. 전략: 이익 중심 대응

### 높아진 경기 침체 가능성: 악화되는 기업들의 이익 환경

#### 1) 이익 모멘텀이 남아 있는 업종 선별: 유틸리티, 의료 장비, 에너지

핵심 인플레이션 하락 전까지 신경 써야할 부분은 기업들의 이익 감소다. 연준 pivot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며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를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이번주 발표된 ISM이나 구인자수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둔화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S&P500 지수 단위에서의 이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일단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이익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0월부터 시작될 3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익 추정치 변동성도 고조될 전망이다. 불안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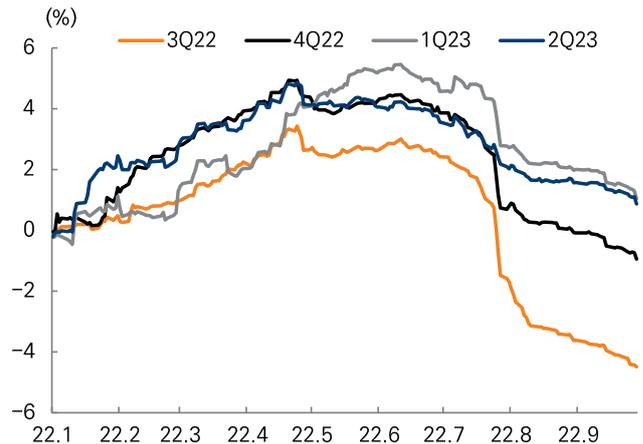
S&P500 기업들의 매출 중 33% 정도가 해외에서 창출되는 관계로 달러 강세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10월 들어 하락하기는 했지만, 지난 3분기 동안 달러 인덱스는 7.1% 상승했다.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달러 강세로 이익이 타격을 받았다는 실적 발표 내용이 다수 있었는데, 3분기에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9일 나이키는 FY23년 1분기(8월말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매출이 4% 증가했지만, 환율 효과를 없애면 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미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림 9. 달러 강세와 역행하는 12MF EPS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연초 대비 S&P500 분기별 이익 추정치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종합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강하며, 미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중에서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 기준으로 보면, 유틸리티, 헬스케어 장비 업종이 선별된다. 이익 모멘텀은 12MF EPS, 영업 이익률, 매출 추정치의 3개월 평균 MoM 증가율 기준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내 매출 비중이 낮고, 아직까지는 잔여 수요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 신규 수요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내구재에 대한 소비 성향은 이미 약해진 상태이다. 나이키는 환율 외에도 재고 처리를 위한 마크다운 비용 등으로 매출총이익이 2.2%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약화되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재고 조정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2분기에 이어 PC, 모바일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약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도 계속 높아진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시클릭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유가는 앞으로 낮은 수요가 하락 압력을 계속 가하겠지만, 가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노드스트림 1,2가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산 LNG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일 바이트 행정부는 겨울에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이 만약 예상보다 높은 가스 수요를 겪을 경우에는 미국산 가스는 더욱 더 강한 수요를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유럽내 가스 공급이 예상보다 양호하거나,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OPEC 회의에서 예상과는 달리 감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는 잠정적 리스크 요인이다.

**표 1. S&P 500 GICS Industry 이익 모멘텀 (%)**

GICS 섹터	12MF EPS MoM (3개월 평균)	영업이익률 MoM (3개월 평균)	매출 증가율 MoM (3개월 평균)	미국 내 매출 비중
S&P500	-0.39	-0.11	0.29	66.9
Consumer Services	2.07	0.22	0.98	58.7
Auto & Components	2.02	0.05	1.49	47.5
Energy	0.88	-0.12	1.71	65.1
Insurance	0.82	-0.03	0.33	72.2
Banks	0.80	0.35	0.82	87.6
Utilities	0.74	0.04	0.60	97.7
Commercial & Professional Services	0.42	-0.05	0.69	84.5
Diversified Financials	0.42	-0.17	0.70	76.3
Capital Goods	0.41	0.02	0.17	61.3
Food/Beverage/Tobacco	0.40	-0.04	0.49	55.1
Real Estate	0.38	0.10	0.30	86.4
Healthcare Equipment & Services	0.32	-0.04	0.74	78.0
Software & Services	0.09	0.05	-0.04	53.3
Retailing	-0.16	-0.05	0.15	77.6
Tech Hardware & Equipment	-0.49	-0.09	-0.25	38.3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0.80	-0.09	-0.26	44.2
Pharmaceutical Bio & Life Sciences	-0.85	-0.21	-0.52	54.2
Food Staples	-1.14	-0.05	0.54	80.7
Transportation	-1.32	-0.11	-0.03	84.5
Telecommunication Services	-1.53	-0.03	-0.10	96.3
Materials	-2.04	-0.33	-0.45	48.8
Media & Entertainment	-2.11	-0.41	-1.23	51.8
Semi & Semi Equipment	-3.81	-0.65	-1.90	19.4
Consumer Durables & Apparels	-4.33	-0.39	-1.86	59.5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Thematic Plays: 국방, 원자력

### 1) 국방

앞서 제시한 업종 외에도 국방 테마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어느 정도 각광을 받았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고려하는 이유는 9월 중순부터 달라진 전쟁의 양상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수개월간 준비한 반격을 개시하면서 일부 영토 수복에 성공했는데, 이는 나토, 특히 미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승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토국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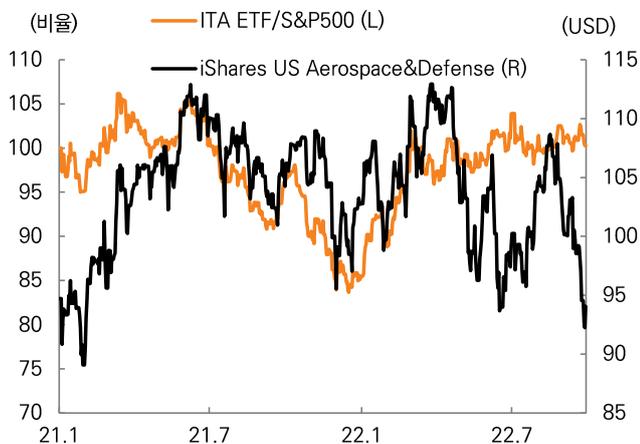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40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도 123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10월 1일까지 정부 섯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용권을 연장시키는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해야 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끼워서 통과됐다.

123억달러의 추가 지원 중 75억달러가 군사적 지원이며, 37억달러를 추가로 대통령 재량 지원 예산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 예산은 기존 미국내 물자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데 사용된다. 75억달러 중에서는 30억달러가 신규 무기 및 장비 주문에 사용되며, 28억달러는 유럽내 미군 증진, 15억달러는 미국내 군수 물자를 다시 채우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앞으로 월마다 15억달러 규모의 금융적 지원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푸틴으로서의 사실상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한 건데, 동원하기 전보다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연초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보면 EU는 대부분 금융적 지원에 그쳤고, 대부분의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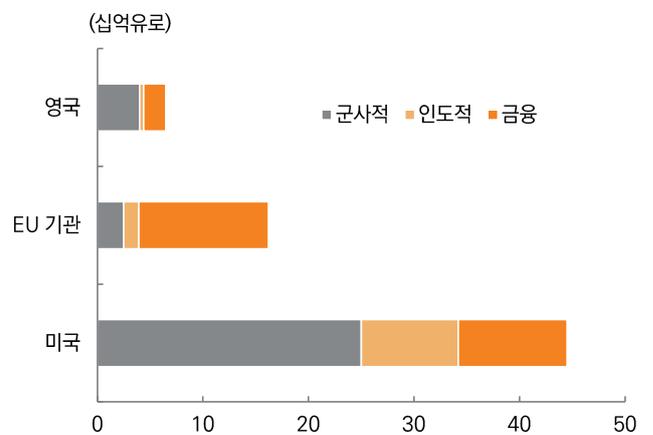
미국 국방 항공 섹터를 추종하는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의 상대 강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공간은 있다. 국방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점도 현 시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림 11. 국방 항공 ETF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국이 주도



자료: Kiel Institut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2) 원자력

원자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차단한데 이어 노드스트림 1,2가 아예 물리적으로 파손되면서 유럽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앞으로도 낮춰야 한다. 지금은 급한대로 가스 대신 석유나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EU 차원에서 강도 높은 탄소 감축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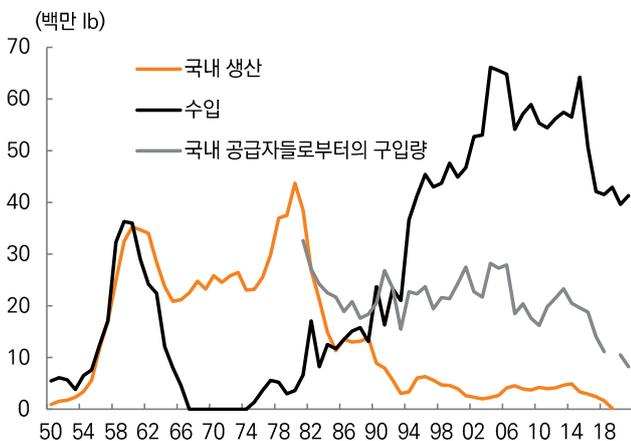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EU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외에 천연가스,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 놓은 만큼, 신재생 외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이미 정책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을 따르던 독일이 U턴하고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보다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방침으로, 차세대 원전을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7년까지 건설하는 목표도 세웠다.

여기에 이탈리아가 원자력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1990년에 닫은 후,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난 25일 총선이 예상대로 우파 정당 연합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Fdi) 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은 현재의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적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차세대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자원 안보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려는 중이다.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내 원자력 연료 확보를 위해 양당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재로서는 미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의 25%, 우라늄의 14% 가량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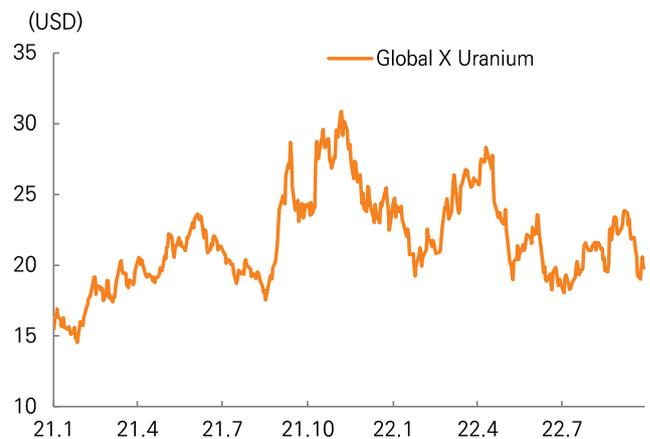
우라늄 ETF에는 긍정적이다. 대체로 우라늄 채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러시아산 연료 비중이 줄면 미국, 조금 더 넓게 보면 북미내 생산자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미국 발전소들이 미국내 공급자들로부터 구입하는 양은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는데, 미국의 이런 정책으로 미국내 공급자들의 공급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원자력 산업을 키우기 위해 43억달러 규모의 정책을 추진한바 있는데, 앞으로 미국측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13. 미국내 우라늄 생산량 및 수입 현황



자료: E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우라늄 관련 ETF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결론: 유틸리티, 의료 장비, 에너지, 방산, 원자력

결론적으로, 핵심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둔화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완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달 들어 연준의 pivot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지만, 아직은 이르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인 이상, 물가 하락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JOLTs 구인자수 하락과 같은 노동 시장 둔화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주식 시장내 약세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인플레이션이 본격 둔화되기 전까지는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이익 모멘텀을 유지하는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유틸리티, 의료 장비, 에너지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방산,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된다. 방산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과로 미국의 추가 지원을 확보하기 보다 원활해졌고, 123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지난 9월 30일에 통과됐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유럽, 미국 정책으로 인해 구조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한 테마라고 판단된다.

### 리서치 커버리지 Top Picks

이익 모멘텀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커버리지내 해외 기업들 중 상위 10개를 선별했다. FY1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영업이익률의 YTD 변동폭과 FY1 EPS 추정치의 YTD 변화율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선별했다.

테크 중에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일즈포스가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최근 마이크로닉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클라우드 부문이 어느 정도 이익을 지켜줄 수 있고, 세일즈포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애플은 계획된 아이폰14 생산 증진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프리미엄 라인은 프로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크 외에는 역시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춘 대형 제약사인 Pfizer, Eli Lilly를 비롯해 Visa가 포함됐다. 또한 반도체 기업이지만 아직 수요가 건재한 산업, 자동차향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On Semiconductor와 테슬라, 보안 기업인 CrowdStrike도 리스크에 올랐다. 에너지 기업인 ConocoPhillips는 높은 수익성과 천연가스 부문 수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3분기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대기 일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수요가 잔존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경기 둔화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하락 조짐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표 2. 리서치 커버리지 Top Picks 10개

기업명	FY1 PE	FY1 PB	FY1 ROE	수익률 MoM (9/30 기준)	수익률 YTD (9/30 기준)	영업이익률 변화 MoM	영업이익률 변화 YTD	영업이익률(FY1)	FY1 EPS MoM	FY1 EPS YTD
Microsoft	23.0	8.4	36.7	-10.9	-30.8	-0.1	0.4	42.3	-0.1	9.9
Apple	22.7	38.9	171.6	-12.1	-22.2	0.0	1.2	30.3	0.1	6.0
Pfizer	6.7	2.5	37.0	-3.3	-25.9	-0.1	9.0	41.7	0.1	54.4
ConocoPhillips	6.8	2.5	37.3	-6.5	41.8	-0.1	8.5	37.9	-2.3	155.2
Visa	24.0	9.8	40.7	-10.6	-18.0	0.0	0.2	67.8	0.1	5.4
Salesforce	30.5	2.4	7.7	-7.9	-43.4	-0.1	1.7	20.3	-0.4	0.6
Tesla	64.7	17.5	27.1	-3.8	-24.7	0.0	5.0	16.4	3.1	104.2
Eli Lilly & Co.	40.4	28.1	69.4	7.3	17.1	-0.1	-1.4	29.1	-0.3	-1.4
On Semiconductor	12.2	4.2	34.8	-9.4	-8.2	0.0	12.4	33.6	0.0	82.4
CrowdStrike	123.6	27.8	22.5	-9.7	-19.5	0.0	2.9	15.0	-0.2	129.5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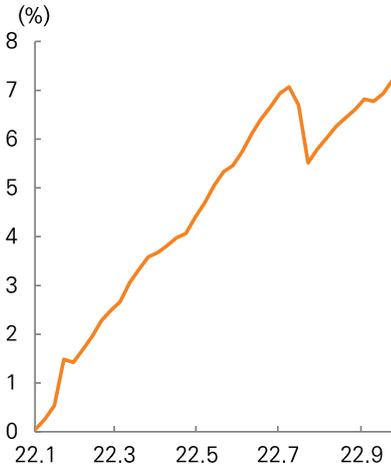
표 3. Top Pick 10개 투자포인트

기업명	투자포인트
Visa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보유. 이익 모멘텀도 양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 결제 시스템도 타격을 입겠지만, 아직 소비는 양호한 상황. 미국인들의 이어지는 여행 수요도 긍정적인 요인
Microsoft	안정적인 수익 기대. 클라우드 실적이 전체 이익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 지난 2분기에서도 비즈니스 대상 부문 수익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Pfizer	대형 제약 업종은 경기 둔화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 높은 수준의 이익률 보유
ConocoPhillips	경기 둔화로 인한 유가 하락은 에너지 업종에 부정적. 그러나 천연가스 부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음
Apple	생산 증진 계획 취소로 타격을 입었으나 고가형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 이익 방어 가능할 것
Salesforce	영업이익률 견조. 금리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높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 지난 분기에는 환율에도 불구하고 선방. 디지털화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
Tesla	최근 3분기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수요 둔화 우려 확산. 그러나 테슬라 제품에 대한 대기 일수는 평균 수준. 동사는 선박 운송 관련 이슈로 생산 조정을 했다는 설명
Eli Lilly & Co.	대형 제약 업종은 경기 둔화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 높은 영업이익률 보유
On Semiconductor	자동차용, 산업용 매출 비중이 높아. 전체 반도체 업종에 비해 이익 모멘텀과 수익률이 높은 배경. 다만, 경기 둔화가 진행되며 자동차에 대한 수요 둔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
CrowdStrike	이익 모멘텀 양호. 밸류에이션 높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구조적 수요 증가 기대. 최근 노드스트림 1,2에 대한 타격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에너지망 보안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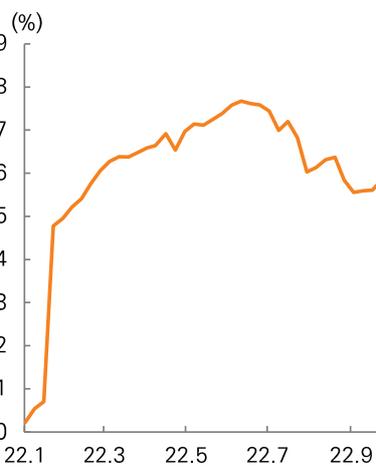
S&P 500 GICS Industry 산업 기준 12MF EPS 추정치 변화

그림 15. Software &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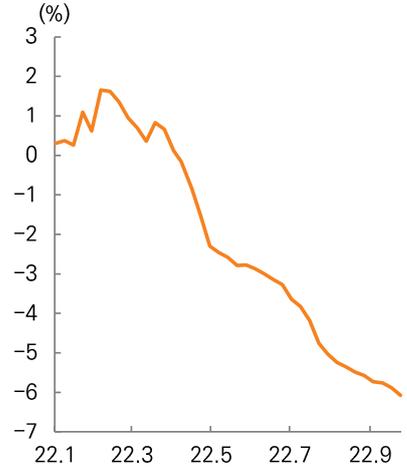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Tech Hardware & Equ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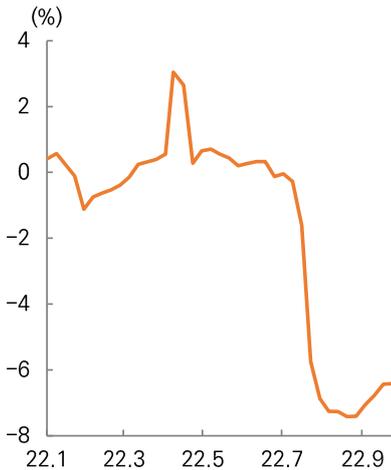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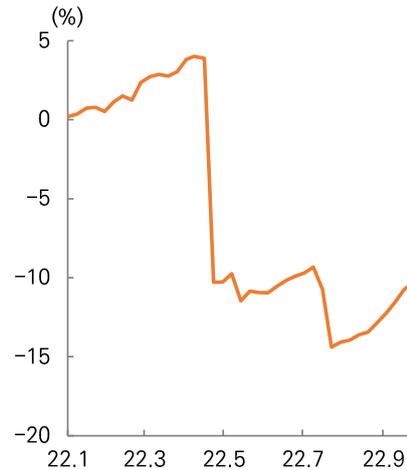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Media &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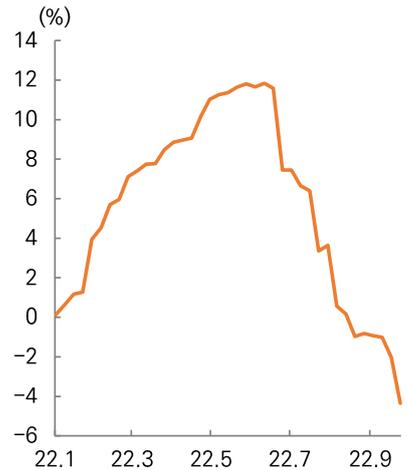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Reta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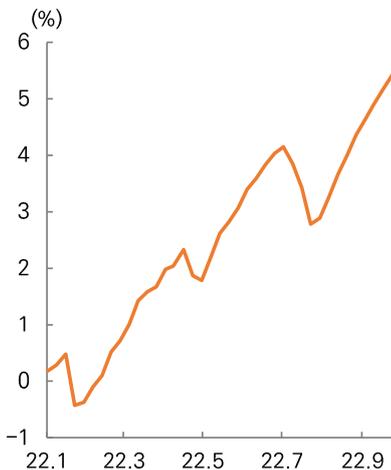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Semiconductors & Equ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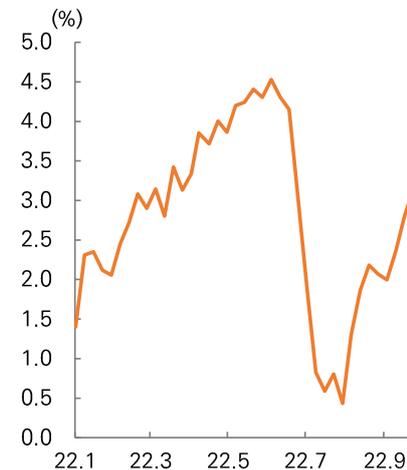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Capital G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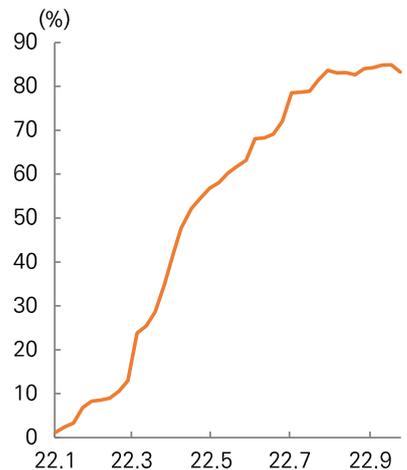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Diversified Finan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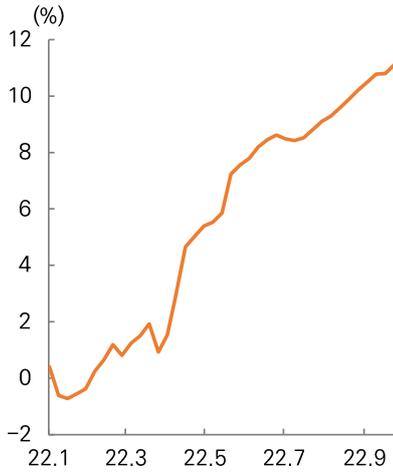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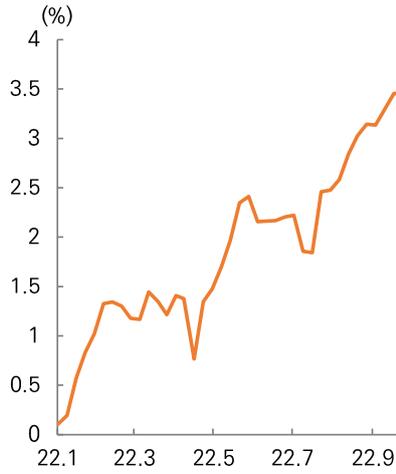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B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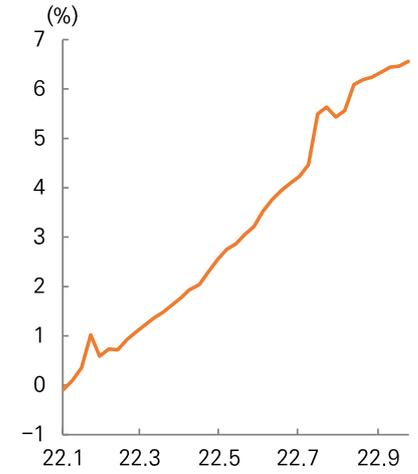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Food & Beverage & Toba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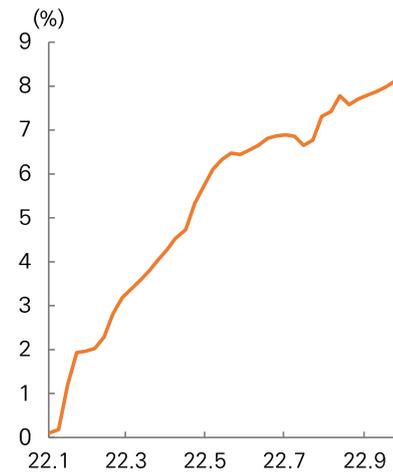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Ut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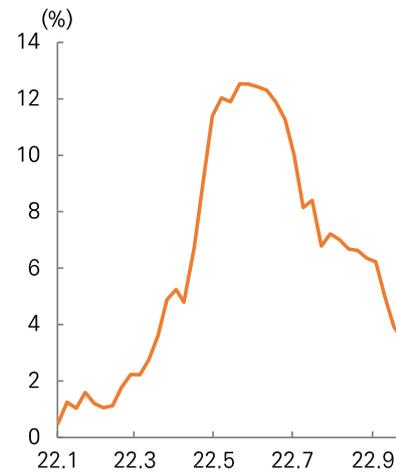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7.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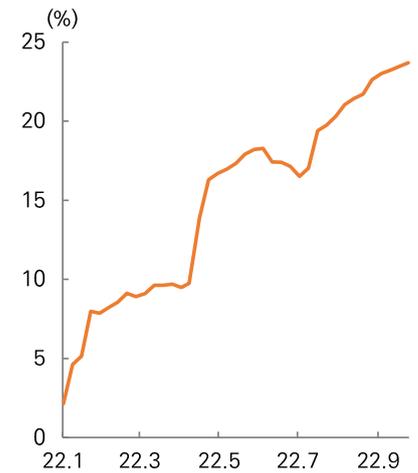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8.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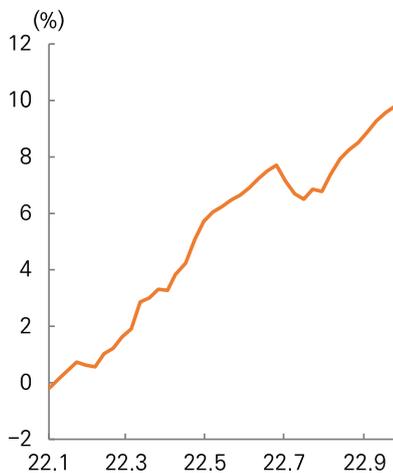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9. Auto & Compon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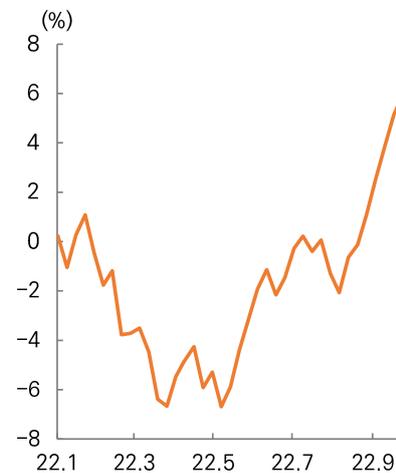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0.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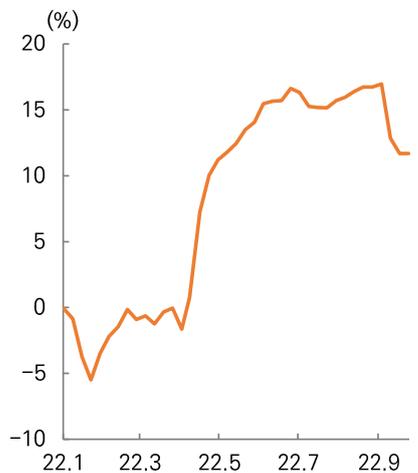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1. Consumer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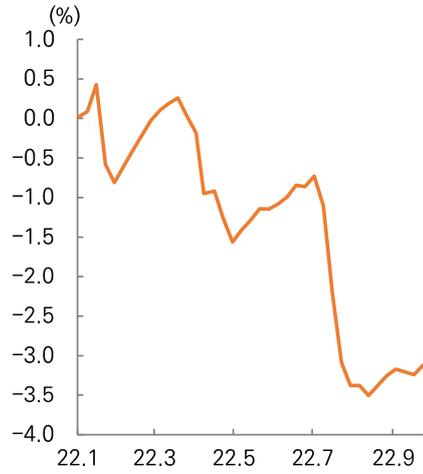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2.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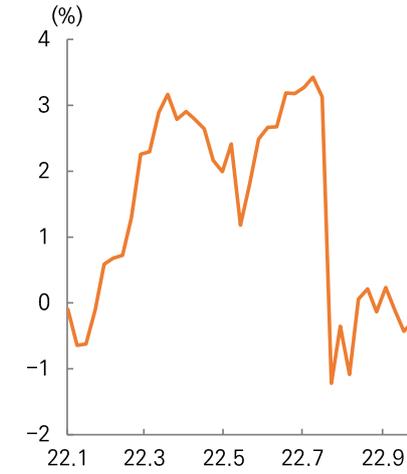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3.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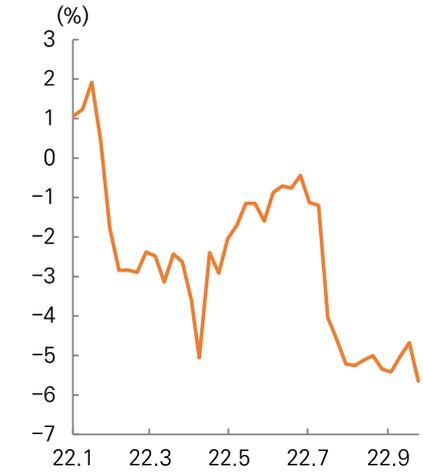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4. Food Sta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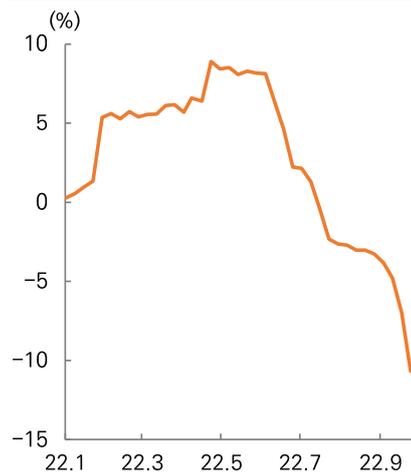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5.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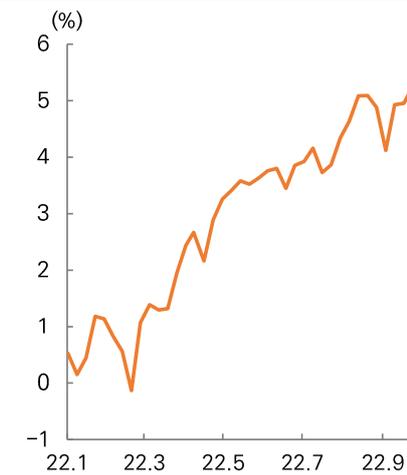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6. Consumer Durables & Appar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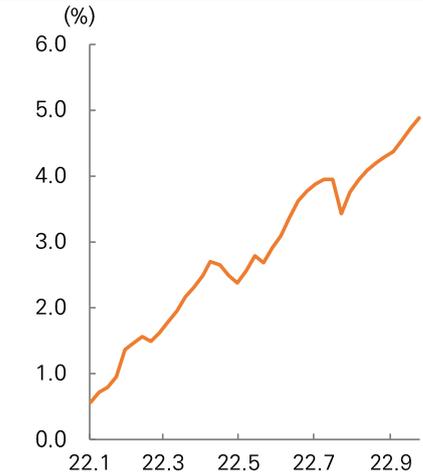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7. Commercial Services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8. Healthcare Equipment & Services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넷플릭스가 열어주는 OTT 광고 시장

정용제, CFA yongjei.jeong@miraeasset.com

- 넷플릭스, 광고 사업 가치 부각** 최근 1개월 넷플릭스 주가 +6.5% vs. 나스닥 -3.9%. 넷플릭스의 광고 사업 가치 부각
- 최근의 조사 결과들은 넷플릭스의 광고 기반 요금제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 반응
  - Omdia는 구독자의 60%가 광고 요금제로 변경 언급. 23년 매출 비중 1.2% 추정
  - 또한 현재 (스탠다드 15.5달러) 대비 절반 가격에 최대 시간당 5분까지 광고 시청 언급
  -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는 월 7~9달러, 시간당 1개, 일당 3개 (시간당 최대 4분) 예상

**OTT 광고 시장의 본격 개화.**  
넷플릭스와 트레이드데스크  
(TTD US) 수혜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참전으로 OTT (AVOD) 및 CTV 광고 시장의 확대 전망**

- 미국 AVOD/CTV 시장은 22년 +22% YoY, 23년 +33% YoY (63억달러) 예상
- 특히 11월 넷플릭스, 12월 디즈니의 참전으로 본격화. 대부분 OTT는 광고 요금제 보유
- 2Q22 로쿠 (ROKU US) 사용자 63백만명 (+14% YoY) vs. 넷플릭스 220백만명
- 넷플릭스 3Q22 타겟 4천만명. 그동안 잠식이 미미했던 TV 광고 시장 잠식 본격화
- 22년 8월 기준 시청 시간 점유율 OTT 35% (+7ppt YoY), TV 56% (-6ppt YoY)
- TV 광고 시장은 전체 미국 광고 시장의 20%. CTV는 6%. 향후 비중 변화 지속 전망

**OTT 광고 시장 개화에 따라 기존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광고 매출 확대 긍정적**

- 넷플릭스의 8월 미국 TV 시청 시간 점유율 7.6%로 OTT 중 1위. 2위 유튜브 7.6%
- 최근 구독자 증가 우려 확대됐으나 광고 기반 요금제로 23년 구독자 상승 가능 판단
- 물론 1) 높은 광고 단가 (CPM 65달러 vs. 슈퍼볼 56달러), 2) 외부 광고 효율 측정 X, 3) 광고 판매사 (DSP)인 MS의 Xandr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존재
- 그러나 샷폼 스트리밍 '퀴비 (Quibi)'는 출시 (20년 4월) 이전 이미 6개 광고주, 1억달러 이상 물량을 확보. 넷플릭스도 초기 물량 확보 긍정적 판단

**또한 OTT의 지속적인 광고 시장 진입은 DSP인 트레이드데스크 (TTD US)에 긍정적**

- 이미 Hulu, HBO max, 파라마운트+, 피코크 등 주요 OTT는 이미 광고 요금제 보유
- 넷플릭스가 선택한 Xandr도 TTD 주도의 UID 2.0 사용. 대부분 CTV는 TTD를 선택
- 특히 디즈니는 TTD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TTD를 통해 디즈니+ 광고 판매 예정
- 이에 전반적 광고 업황 둔화 예상되나 23년 OTT/CTV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전망

**단기 둔화 우려 지속.**  
다만 일부 성장 세그먼트에  
주목: OTT, 애플, 쇼핑 광고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단기 둔화 우려는 존재. 다만 일부 성장 세그먼트에 주목**

- 기존 플랫폼 중 쇼핑 광고 시장 잠식 예상되는 아마존 긍정적. 구글, 메타는 위협
- Magna Global은 23년 미국 광고 시장 성장률을 기존 5.8%에서 4.8%로 하향
- 다만 일부 세그먼트 및 기업은 성장세 지속 가능. 1) OTT, 2) 애플, 3) 쇼핑 광고
- 이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게 위협 요인. 아마존 중심의 쇼핑 광고는 구글 일부 잠식
- 애플은 iOS 영향 및 앱스토어 광고 통해 SNS의 무기였던 '앱인스톨' 광고 시장 잠식
- OTT 광고는 유튜브 대비 매출 비중은 낮지만 유튜브와 함께 TV 광고 시장 잠식 전망
- 관련 레포트: 애플과 아마존, 틱톡의 위협 - <https://bit.ly/3ddWz8v>

## 부족한 캐털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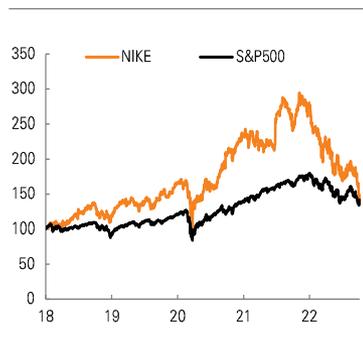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USD 185.00
현재 주가 (22/10/04)	USD 88.64
상승여력	108.7%
국가	미국
거래소	NYSE

Bloomberg Rating		
매수	보유	매도
67%	31%	3%

EPS 성장률 (23F,%)	-16.5
P/E(23F,x)	27.7
MKT P/E(23F,x)	16.8
배당수익률(%)	1.38
시가총액 (십억USD)	139.0
시가총액 (조원)	196.9
유통주식수 (백만주)	1,261.2
52주 최저가 (USD)	82.22
52주 최고가 (USD)	179.10

주가상승률 (%)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2	-34.0	-39.8
상대주가	-13.2	-20.2	-31.7

- 23년 1분기 실적 (22년 6월~8월): 중국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고 북미 지역 재고 증가로 인한 마진 압박. 그러나, 예상을 상회하는 북미 지역 매출 성장 (+13% YoY)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
- 북미 지역 (매출의 43%)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 성장. 미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예상보다는 견고한 것으로 판단. 한편, 경영진은 지난 분기에 입고 되어야 하는 북미 지역 재고가 이번 분기에 한꺼번에 입고 되어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고 밝힘
- 하반기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고 소진을 위한 프로모션 강화가 예상되나, 수요 위축으로 인한 재고 증가가 아니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 중국 매출은 달러 기준, 현지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13% 감소. 시장 기대치 수준이나 시장 점유율은 지난 두 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 '귀차오' 트렌드 지속으로 안타와 리닝 등 자국 스포츠웨어 점유율의 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동사의 주가는 현재 23년 컨센서스 P/E 기준 27.7배에 거래, 역사적 하단 수준에서 거래 중. 하반기 미국 소비 둔화 가능성과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지배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계산기 (5월)	5/20	5/21	5/22	5/23F	5/24F	5/25F
매출액 (백만USD)	37,403	44,538	46,710	49,275	53,539	58,335
영업이익 (백만USD)	3,115	6,937	6,675	5,811	7,290	8,699
영업이익률 (%)	8.3	15.6	14.3	11.8	13.6	14.9
순이익 (백만USD)	2,539	5,727	6,046	4,919	6,113	7,244
EPS (USD)	1.63	3.64	3.83	3.20	4.00	4.73
ROE (%)	29.7	55.0	43.1	33.2	39.4	44.61
P/E (배)	54.8	37.0	31.7	27.7	22.2	18.75
P/B (배)	19.1	16.9	12.2	9.2	8.4	8.1

주: GAAP  
 자료: Nike,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실적이 너무 좋으니 못 믿을 만도

**매수**  
(유지)

목표가: 40,000원  
상승여력: 46.3%

차유미 yumi\_cha@miraeeasset.com

**북미 고객사 관련**  
지속되는 노이즈는  
호실적으로 증명할 것

### 고가 라인은 예상대비 더 잘 팔린다

- 9월 북미 고객사 신규 모델 출시. 전작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높은 기저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아이폰14 역시 견조한 판매량 기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예상 판매량은 아이폰13 9,000만대→아이폰14 9,000만~9,100만대 전망. 이중 프로 시리즈 판매 비중은 60% 수준으로 전작(약 50%)대비 큰 폭의 상승

**3Q22 예상 매출액 21% 상향**  
조정

### 매출액 4,752억원(+42% YoY, +40% QoQ) 및 영업이익 660억원(+51% YoY) 전망

- 1)견조한 프로 시리즈 수요를 기반으로 믹스개선, 2)경쟁사 생산 차질에 따른 물량 수혜, 3)환율 효과에 따른 3Q22 북미 고객사향 매출액 지속 상향 조정
- 신규 모델 수요 우려에도 물량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1)디스플레이 경쟁사의 LTPO 수율 이슈로 초도 물량 생산이 제한적일 것이며, 2)RFPCB 경쟁사의 생산 차질로 SDC 밴더 내 동사의 공급 물량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 동사는 프로 모델의 추가 생산을 위한 라인 변경을 진행 중이며, 수율 개선을 통한 22년 수익성 개선 추가 업사이드 기대

### 투자 의견

###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 프로 모델의 수요가 기본 모델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수혜 기대. 동사는 상위 모델 중심으로 RF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
- 국내 고객사의 23년 출시 예정 스마트폰이 실적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최근 아이폰14 기본 모델 중심의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동사 추가 급락은 과도하다고 판단
- 동사의 RFPCB가 탑재되는 application이 스마트폰에서 EV, 태블릿으로 확대되며 중장기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 유효

### Key data



현재주가(22/10/4,원)	27,350	시가총액(십억원)	943
영업이익(22F,십억원)	163	발행주식수(백만주)	34
Consensus 영업이익(22F,십억원)	0	유동주식비율(%)	71.3
EPS 성장률(22F,%)	94.7	외국인 보유비중(%)	23.7
P/E(22F,x)	5.8	베타(12M) 일간수익률	1.00
MKT P/E(22F,x)	9.3	52주 최저가(원)	17,500
KOSDAQ	696.79	52주 최고가(원)	32,850

###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2.2	12.1	52.4
상대주가	-1.0	52.4	115.0

###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결산기 (12월)	2019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655	721	1,037	1,640	1,886	2,168
영업이익 (십억원)	63	34	71	163	183	210
영업이익률 (%)	9.6	4.7	6.8	9.9	9.7	9.7
순이익 (십억원)	57	26	82	162	156	175
EPS (원)	1,770	782	2,428	4,729	4,514	5,075
ROE (%)	24.2	8.7	22.5	32.6	23.6	21.5
P/E (배)	12.4	28.1	9.6	5.8	6.1	5.4
P/B (배)	2.2	2.0	1.7	1.5	1.2	1.0
배당수익률 (%)	0.0	1.1	1.1	0.9	0.9	0.9

#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2. 10. 6 (목)

## 한국/아시아

(p, %)

	Price	1D	1W	1M	3M	1Y
KOSPI (10/5)	2,215.22	0.26	2.12	-7.84	-5.10	-25.22
KOSDAQ (10/5)	685.34	-1.64	1.70	-11.16	-9.58	-28.26
KOSPI200 (10/5)	289.05	0.27	2.07	-7.50	-6.25	-25.50
일본 NIKKEI225 (10/5)	27,120.53	0.48	3.62	-1.81	2.38	-2.52
중국 상해종합 (9/30)	3,024.39	-0.55	-2.07	-5.55	-10.72	-15.24
홍콩 항셱 (10/5)	18,087.97	5.90	4.85	-5.92	-16.43	-24.96
홍콩 HSCCI (10/5)	6,224.61	6.28	4.46	-5.37	-17.43	-26.90
대만 TWSE (10/5)	13,801.43	1.66	2.49	-5.86	-3.73	-16.16
인도 SENSEX (10/4)	58,065.47	2.25	1.68	-1.25	8.03	-2.08
베트남 VSI (10/4)	1,078.14	-0.76	-7.58	-15.80	-6.22	-19.51
인도네시아 JCI (10/5)	7,075.39	0.04	-0.02	-2.16	6.36	12.52

##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10/4)	30,316.32	2.80	4.05	-3.20	-2.32	-10.84
미국 S&P500 (10/5)	3,790.93	0.00	1.93	-3.40	-2.86	-12.77
미국 NASDAQ (10/5)	11,176.41	0.00	1.13	-3.91	-3.83	-22.57
유로 STOXX50 (10/5)	3,447.72	-1.05	3.37	-1.21	-1.17	-15.19
독일 DAX30 (10/5)	12,517.18	-1.21	2.74	-1.91	-2.54	-17.62
영국 FTSE100 (10/5)	7,052.62	-0.48	0.67	-3.22	-1.90	-0.35
브라질 보베스파 (10/5)	116,230.00	5.63	7.25	4.84	17.74	2.95
러시아 RTS(\$)(10/5)	1,061.97	-3.47	-1.17	-17.53	-6.23	-42.29
필리핀 피아만도체 (10/5)	2,523.61	0.94	3.97	-2.91	-3.16	-21.80
나스닥 헬스케어 (10/5)	858.89	0.00	2.91	0.44	-2.89	-28.50
VIX (10/5)	28.55	-1.79	-5.40	9.85	9.47	34.04

##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10/5)	1,411.01	-1.07	-2.07	2.85	8.55	18.69
달러/유로 (10/5)	0.99	-1.02	1.53	-0.45	-2.72	-14.78
엔/달러 (10/5)	144.64	0.35	0.33	2.87	6.35	29.77
원/엔(100엔) (10/5)	978.62	-0.42	-0.94	0.36	2.52	-8.12
위안/달러 (9/30)	7.12	-0.13	-0.18	3.27	6.18	10.41
달러인덱스 (10/5)	111.21	1.04	-1.24	1.53	3.81	18.34
원/헤알 (10/5)	271.44	-1.47	1.21	1.99	11.56	25.05
헤알/달러 (10/5)	5.20	0.39	-3.30	0.84	-2.68	-5.08

##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10/5)	87.76	1.43	6.83	1.02	-14.57	11.19
원유 Brent (10/5)	93.37	1.71	4.53	-2.48	-10.78	13.09
원유 Dubai (10/5)	91.95	3.18	7.73	-3.89	-12.86	15.69
휘발유 NYMEX (10/5)	266.85	-0.54	3.51	8.32	-21.98	13.17
천연가스 NYMEX (10/5)	6.93	1.36	0.90	-21.12	10.05	9.79
석탄 ICE (10/5)	290.75	-2.94	-4.75	-25.92	-22.47	6.38
플라실리콘 (10/5)	35.84	-0.06	-0.06	-4.96	0.87	9.87
태양광 모듈 (10/5)	0.21	0.00	0.00	-4.61	-5.91	1.47

## 국내금리/채권

(%, bp)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10/5)	2.50	0.00	0.00	0.00	75.00	175.00
CD(91일) (10/5)	3.32	4.00	18.00	39.00	127.00	228.00
LIBOR(3개월) (10/4)	3.74	-0.76	9.89	58.26	135.01	361.41
국고3년 (10/5)	4.16	7.60	-18.10	54.10	89.50	250.70
국고10년 (10/5)	4.10	9.60	-23.00	43.20	79.50	181.10
회사채3년(AA-) (10/5)	5.24	6.70	-10.00	64.60	112.90	314.10

##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9/30)	762.00	-1.17	-0.91	-0.78	-5.34	6.57
중국 열연(위안) (9/30)	4,030.00	0.27	0.78	1.79	-8.33	-30.53
구리 LME (10/4)	7,545.00	1.82	1.96	0.37	0.07	-18.61
알루미늄 LME (10/4)	2,272.00	4.75	6.67	-1.26	-4.54	-21.92
금 COMEX (10/5)	1,720.80	-0.56	3.64	0.46	-1.09	-2.28
은 COMEX (10/5)	20.54	-2.63	8.81	14.89	7.07	-9.13

##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10/5)	4.15	5.40	1.70	75.90	113.30	386.10
미국채 10년 (10/5)	3.76	12.20	2.30	56.30	75.80	222.40
독일국채 10년 (10/5)	2.03	16.30	-8.60	47.10	71.60	222.20
일본국채 10년 (10/5)	0.25	3.00	0.50	1.60	0.40	19.20
인도국채 10년 (10/4)	7.36	-10.30	6.90	13.00	6.80	111.40
중국국채 10년 (9/30)	2.75	3.40	7.00	10.60	-7.90	-12.70
브라질국채 10년 (10/4)	11.74	-2.40	-30.50	-20.50	-151.20	65.7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10/4)	2,137.34	1.31	1.80	-2.03	0.72	-12.50
FTSE글로벌리츠지수(p) (10/5)	2,763.82	-1.82	0.96	-9.80	-10.67	-18.90

##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10/5)	684.00	0.15	2.01	2.74	12.32	27.26
소맥 CBOT (10/5)	902.00	-0.11	-0.14	11.22	7.83	21.11
대두 CBOT (10/5)	1,369.75	-0.99	-2.77	-3.57	-7.78	9.54
설탕 ICE (10/5)	17.95	0.22	-1.86	-1.10	-3.08	-9.57
천연고무 TOCOM(엔) (10/5)	227.70	0.18	1.52	1.43	-9.86	14.54
BDI (p) (10/4)	1,865.00	4.31	3.21	71.73	-8.71	-64.59
SCFI (p) (9/30)	1,922.95	-7.20	-7.20	-39.04	-54.25	-58.32
DDR4 8G (10/5)	2.62	0.00	-1.50	-4.03	-18.63	-33.29
NAND TLC 128G (10/5)	1.64	0.00	0.00	-5.75	-14.14	-20.41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2. 10. 6 (목)

유가증권시장		10/05 (수)	10/04 (화)	09/30 (금)	09/29 (목)	09/28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2,215.22	2,209.38	2,155.49	2,170.93	2,169.29	
	이동평균	20일	2,313.91	2,323.62	2,333.93	2,349.76	2,363.76
		60일	2,394.98	2,396.96	2,398.34	2,401.44	2,403.60
		120일	2,480.44	2,484.43	2,488.52	2,493.02	2,497.72
	이격도	20일	95.73	95.08	92.35	92.39	91.77
		60일	92.49	92.17	89.87	90.40	90.25
	거래대금(억원)	95,090.8	75,002.8	79,237.5	72,407.1	92,083.5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40	40	30	30	20	
	ADR	62.02	58.74	57.92	52.15	59.56	
코스닥시장		10/05 (수)	10/04 (화)	09/30 (금)	09/29 (목)	09/28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685.34	696.79	672.65	675.07	673.87	
	이동평균	20일	738.51	743.54	748.11	754.83	760.93
		60일	778.89	780.10	780.90	782.20	783.00
		120일	814.62	816.59	818.58	820.70	822.94
	이격도	20일	92.80	93.71	89.91	89.43	88.56
		60일	87.99	89.32	86.14	86.30	86.06
	거래대금(억원)	53,802.4	46,258.8	54,956.6	56,740.4	63,684.4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40	30	30	20	
	ADR	63.05	60.39	56.43	51.46	59.56	
자금지표		10/05 (수)	10/04 (화)	09/30 (금)	09/29 (목)	09/28 (수)	
국고채 수익률(3년, %)		4.16	4.08	4.19	4.30	4.34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5.27	5.16	5.28	5.39	5.42	
원/달러 환율(원)		1,411.01	1,426.29	1,432.12	1,439.20	1,440.88	
원/100엔 환율(원)		978.62	982.74	990.73	990.67	987.90	
CALL금리(%)		-	2.53	2.79	2.55	2.54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0	340	-190	-254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0	259	-85	118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0	-83	-68	-200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0	-6,843	-6,239	-318	
MMF 잔고(억원)		-	1,427,551	1,420,803	1,484,777	1,493,415	
고객예탁금(억원)		-	512,195	508,523	518,539	525,678	
미수금(억원)		-	2,265	2,887	3,802	2,857	
신용잔고(억원)		-	168,483	171,648	174,612	179,096	
해외 ETF 자금유출입		10/05 (수)	10/04 (화)	09/30 (금)	09/29 (목)	09/28 (수)	
한국 관련 ETF(억원)		-	-	-	-	-44.0	
이머징 관련 ETF(억원)		-	274.2	-251.7	176.2	474.1	
아시아 관련 ETF(억원)		0.0	0.2	-16.5	-0.2	7.4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323.6	125.3	22.9	83.9	
Total(억원)		0.0	598.0	-142.8	198.8	521.4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